

# Digital Currency Watc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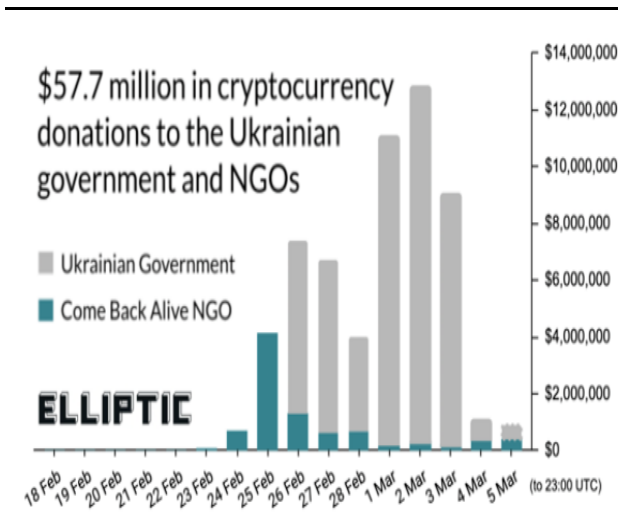


Analyst, 한대훈 / 3773-8515, handaehoon@sk.co.kr

2022/03/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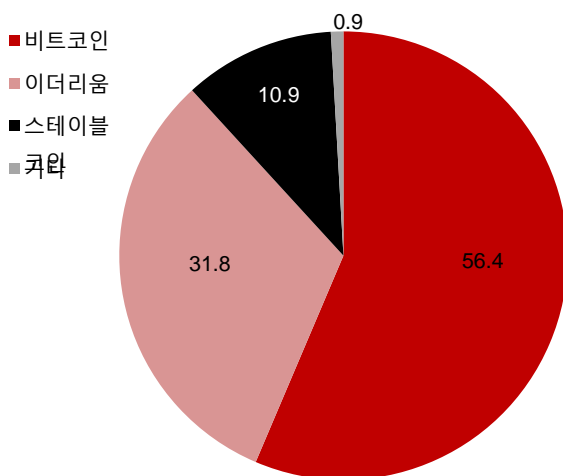
##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트코인

우크라이나에 모금된 암호화폐 추이



자료: Elliptic, SK 증권

우크라이나에 모금된 암호화폐 종류 및 규모



자료: Elliptic, SK 증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암호화폐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크게 세가지에 주목한다.

우선, 러시아의 침공에 규탄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SWIFT 망에서 러시아를 제외하면서 러시아는 수출대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러시아 국민들이 은행 ATM 앞에 긴 줄을 선 모습도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었다. 늘 지정학적 리스크나 금융제재에 직면했을 때 해당국가의 비트코인 거래는 급증한다. 이번에도 러시아의 비트코인은 10% 이상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즉,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현재상황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믿음이 가장 클 수 밖에 없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암호화폐 모금도 급증했다. 러시아의 침공에 피해를 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암호화폐를 통한 후원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Elliptic 에 따르면, 이미 6 천만달러 이상의 암호화폐가 우크라이나에 기부됐다. 우크라이나 정부도 암호화폐 지급주소를 공개하면서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이는 엘살바도르에 이어 국가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또 다른 사례다.

마지막으로 주요 글로벌 거래소들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시작했다. 사실 이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에 대한 본래취지와는 배치된다. 그러나 이번 제재를 통해 결국 암호화폐가 제도권 및 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즉,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①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부각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②모금활동과 국가의 지급 공개를 통해 암호화폐를 인정하는 국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그리고 ③암호화폐가 제도권 및 정부의 영향력이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예상해볼 수 있다